

황교안·오세훈·김진태 3파전

(기호 1) (기호 2) (기호 3)

한국당 당권, 심재철·정우택·주호영·안상수 불출마 '5·18 망언' 김진태 징계 가능성에 2파전 될수도

보름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의 3파전 구도로 싸였다.

한국당 당 대표 선거에는 당초 8명이 출사표를 던지며 치열한 당권 경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후보등록일인 12일 선거 판에 뛰어든 주자는 3명으로, 판 자체가 쪼그라든 모양새다. 당 지도부의 2·27 전대 일정 연기 불가를 문제삼아 전대 보이콧을 선언한 6명의 당권 주자 중 5명이 불출마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오세훈 전 시장만이 태도를 바꿔 출마를 결정했다. 다만 오 전 시장과 황 전 총리 등 유력 주자가 완주 의지를 밝힌 만큼 전대 열기는 달아오를 전망이다. 무엇보다 친박(친박근혜) 대 비박(비박근혜)의 경쟁구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체로 황 전 총리와 김 의원은 친박 진영, 오 전 시장은 비박 진영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분류된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정부 첫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다는 이력을 바탕으로 입당 후 자연스레 친박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방송 인터뷰로 촉발된 '배박' (박근혜를 배신했다) 논란이 일었지만, 황 전 총리는 여전히 친박 진영의 유력 주자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황 전 총리 역시 전대 승패를 좌우할 대구·경북(TK) 지역을 수차례 방문, 한국당의 전통 지지

층은 물론 박 전 대통령에게 여전히 호의적인 표심을 파고드는 데 주력했다.

김 의원은 탄핵 국면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며 주목을 받았다. 당 안팎에서 김 의원이 친박 대 비박의 세 대결에서 가장 열성적인 책임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의외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따라서 이른바 '친박 표'를 둘러싼 황 전 총리와 김 의원의 경쟁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오 전 시장은 출마선언에서부터 '박근혜 극복론'을 들고나온 데 이어 이날 전대 보이콧 철회 기자회견에서도 "한국당은 보수우파를 위한 정당이지, 두 전직 대통령을 위한 정당은 아니다"라며 친박 진영에 각을 세웠다.

전대를 앞두고 옥중 박 전 대통령의 의중 확인 등 '친박 회귀'로 여론이 흐르는 점을 경계하면서도 자신이 중도 우파·개혁 보수 진영과 비박계 대표 주자임을 각인시키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오 전 시장은 회견에서 "오늘 드린 말씀이 TK 정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선거전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감수할 생각"이라며 다른 2명의 주자와 차별화했다.

한국당은 당초 오는 19일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자에비심사(컷오프)를 실시, 당대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할 예정이었으나, 3명만이 후보등록을 함에 따라 컷오프는 생략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법관 탄핵 5~6명... 이달중 명단 발표”

신광렬·이민걸·임성근·박상언·정다주 판사 등 거론 김경수 지사 재판 지원 분리 대응...3당과 공조도 변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의 탄핵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의 범위를 5~6명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나오는 대로 탄핵 소추 대상 판사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는 시점을 고려한 스케줄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법관 탄핵을 5명 정도로 아주 소수만 하기로 했다"며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탄핵은 최악의 경우에 동원하는 수단으로,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법의 독립 등을 고려해 최소 5명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사법농단 및 책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관 탄핵 범위와 관련해 "5~6명이다"라고 확인했다. 민주당이 제시할 탄핵 소추 대상으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상징적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종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내부적으로 개략적인 탄핵 소추 명단을 잠정 확정된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안에 세부 명단을 발표하고,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탄핵 소추 대상자들의 '꼼수 사직'을 막기 위해 명단 발표부터 국회 본회의의 가결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시나리오를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판사가 탄핵되면 5년 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지만, 탄핵 절차 전 사직하면 현직이 아니어서 탄핵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법관 탄핵 문제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 지원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밖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조도 핵심 변수다. 애초 법관 탄핵에 우려를 표명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야야 4당 간에 몰림 협상이 시도됐지만, 구체적 범위와 일정 등에 관한 입장차가 작지 않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당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한국당을 빼고도 탄핵 소추안의 국회 표결 통과가 가능하다"며 "5·18 망언 비판을 고리로 야야 4당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합뉴스



여야 범미단,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참배 대미 의회정상외교에 나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들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내셔널 몰 서편 웨스트포드 맥 공원에 있는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진보·보수 다 품겠다”

바른미래 창당 1주년 회견...“안철수 복귀 시점 아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2일 창당 이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당 정체성 문제와 관련, “진보를 배제하지도, 보수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창당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다양성의 시대에 진보와 보수를 함께 아우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의 미래로, 이를 함께 아우르는 게 바른미래당의 길”이라며 “그것이 중도개혁 정치이며 중도 통합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최근 국회의원 연설회에서 유승민 전 공동대표가 당의 정체성으로 ‘개혁보수’를 강조한 데 대해 “어떻게 보수만 갖고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나”라고

반문한 뒤 “진보와 보수를 모두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합하는 중도 통합의 길로 나간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유 전 대표가 개혁보수를 말하지만 합리적 진보를 배제하는 게 아닌 만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대표는 독일 유학 중인 안철수 전 의원의 복귀 시점에 대해선 “곧바로 귀환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 생각하고, 때가 되면 바른미래당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은 중도개혁으로 중원을 더 차지해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합당 문제를 거론할 일이 아니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미래·평화당 통합 ‘제3세력’ 필요” 한병도 “임종석, 총선 출마 할 것”

박주선·김동철·장병완 의원 ‘제3정당의 길’ 토론회

박주선·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과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2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통합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제3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발전과 제3정당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에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중도세력을 아우르는 제3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주선 의원은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하나가 되면 세력이 확장되고 뿌리가 튼튼해져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 이 오더라도 3

당의 역할을 하고 존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제대로 된 정당 출현을 국민들이 목말라하고 있다”며 “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여당과 야당, 소속에 상관없이 제대로 된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대체할, 대한민국에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그리고 중도세력을 아우르는 제3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1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출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진행자가 임 전 실장의 거취에 대해 묻자 “(임 전 실장이) 구체적인 발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된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조만간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부터 함께 청와대에서 일하다 지난날 8일 동시에 교체됐다.

한 전 수석은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를 묻자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답했다.

“조국 민정수석의 PK(부산·경남) 차출설도 나온다”라는 물음에는 “조 수석은 현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며 “어느 지역에 대한 차출설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당에서도 PK 차출설이 공론화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날 임 전 실장을 아랍에미리트(UAE) 특임 외교특사로, 한 전 수석을 이라크 특임 외교특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커리어를 관리해주시려는 문 대통령의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했으면 평가와 경력 관리는 충분히 됐을 것”이라며 “그런 뜻은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수땅, 투자가치 좋습니다

- 전남 여수시 봉강동343-1번지의 2필지, 대지 431평 (343-1-260평, 343-2-141평, 34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 대출-18억7500만원
-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30억

문의. 010-6834-7400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상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에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군 일로읍 화산연꽃단지 점 1192㎡ 조용한 생활 적합 1억2700
-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6㎡ 경관 아주좋은 1억1880만원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반도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고흥 도양읍(농동) 석유판매시설 연매출 3억원 연수익 1억원 귀농 귀직 3억천
- 무안 운남면 바다인접 전 계획관리지 4505㎡ 조건은 상담요 1억5천
- 해남 옥천면 산·전·담 36625㎡ 조용한생활적합 1억3천
- 영암읍 학소리 농림지 담(목담) 24694㎡ 조용한생활적합 1억9천
- 완도 군외면 원동리 임 7751㎡ 투자에 좋은 바다인접 4억6천
- 무안읍 원동·다세대부지 균형 땅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순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서구 쌍촌동 운천사지 부근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강진군 드림팜관광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접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화순 농주면 소재지 땅 588㎡ 3층건물 1128㎡ 은행 1억 인수액 1억천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완도읍 정동리 땅 4024㎡ 건물 1203㎡ 연수익 등 적합 9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물 279㎡ 4억5천

특급물건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바다인접 2346㎡ 펜션 등 적합 5억
- 충장로 5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100. 2억
- 정읍시 신대면 1213㎡ 김정 6억4천 다세대 적합 은행 3억7천 매도 4억3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